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척추
논문제목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에서 불안정성의 종류에 따른 임상적, 방사선
학적 결과 비교
영문제목 **The Comparison of Clinical and Radiologic Results in the
Isthmic Spondylolisthesis Classified by Instability**
발표자 한동훈 책임저자 이규열
저자 이규열,한동훈,서종연
기관명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

서론 :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을 불안정성의 종류에 따라 후향적으로 분류하고 수술 후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을 불안정성의 종류에 따라 후향적으로 분류하고 수술 후 방사선학적,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결과 : 임상적으로 **MVAS** 및 **KODI**는 술 후 모든 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호전을 보였으나, I군과 II군간에 임상증상의 호전 정도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방사선학적으로 I군과 II군에서 각각 전위 정복 소실율은 3.8%, 3.9%, 요추 분절각 복원 소실은 2.6°, 2.7°, 골유합율은 87%, 80%로 I군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비교군간 유의성은 없었다. 추간판 높이 복원 소실은 I군과 II군의 비교에서 각각 2.8mm, 3.1mm로 II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있게 감소된 소견을 보였으며($P=0.045$), 합병증은 척추경 나사이완이 II군에서만 3례 나타났으나, 임상적 결과와의 연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결론 : 협부형 척추 전방 전위증에서 I군과 II군 사이에는 수술적 치료 시행 후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그 결과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사료되나, 추간판 높이의 복원 유지에 통계학적으로 비교군간 유의한 차이가 있어 전위의 정복에 각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합병증은 II군에서 I군보다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임상적 상관 관계는 없었다

acknowledgment :

협부성 척추 전방 전위증, 불안정성, 후측방 유합술, 후방요추체간유합술
